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 윤곽...격전 예고

6·3 지방선거 D-36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본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곳의 후보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선 체비에 돌입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도 일찌감치부터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과 당 조직력이 유지될지, 혁신당·무소속 등 비민주당 진영이 틈새를 파고들며 균열을 만들어낼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2·3·4·5·12면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로 동구정장 임택·서구청장 김이강·남구청장 김병내·북구청장 신수정·광산구청장 박병규 후보를 공천했다.

이 중 북구를 제외한 4곳은 현직 단체장이 공천을 받아 '현직 프리미엄'과 구정 역량 등을 앞세워 수성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는 지역 최초 여성 단체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민주당 진영에서는 동구정장 김성환(조국혁신당)·북구청장 김주엽(진보당)·광산구청장 정희성(진보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본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서구청장·남구청장 선거는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만 확정된 상태에 비민주당 진영에서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는 상황이다.

전남 22개 시·군도 민주당이 전남 입지력 화순군수 후보 선출을 끝으로 전 지역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대진표가 짜지고 있다.

민주당 단체장 후보는 목포시장 강성휘·순천시장 손훈호·여수시장 서영학·나주시시장 윤병태·광양시장 정인화·영암군수 우승희·강진군수 차영수·진도군수 이재각·해남군수 명현관·신안군수 박우량·함평군수 이남우·보성군수 김철우·곡성군수 조상래·고흥군수 공영민·구례군수 장길진·담양군수 박종원·영광군수 장세일·장흥군수 김성·무안군수 김산·완도군수 우홍섭·장성군수 김한중·화순군수 임지락 후보다.

비민주당 진영의 경우 조국혁신당에서 목포시장 박홍률·여수시장 명창환·나주시시장 김덕수·담양군수 정철원·장성군수 김왕근·곡성군수 박용두·구례군수 이창호·장흥군수 사순문·해남군수 서해근·영암군수 최영열·영광군수 정원식·함평군수 이윤행·신안군수 김태성 후보가 바짝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순천시장 이상수·영광군수 이석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뒤 표심을 다지고 있다. 정의당은 목포시장 선거에 여인두 후보를 배처해 전남 기초단체장 1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노관규 순천시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김희수 진도

민주당 27곳 경선 마무리...본선 체비

혁신·무소속 후보들도 표심잡기 분주

민주당 텃밭 수성·혁신 단체장 추가 배출

무소속 현직 재입성 등 관전 포인트 다

군수 후보가 각각 민주당 후보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목포시장 김시은 후보, 여수시장 원용규·김창주 후보, 순천시장 노관규 후보, 광양시장 박성현 후보, 담양군수 최희삼 후보, 구례군수 박인환·정양조·정택국·정현택·이현창 후보, 보성군수 윤영수·임영수 후보, 화순군수 김희수 후보, 완도군수 김신 후보, 해남군수 박지원 후보, 영암군수 오현선 후보, 영광군수 김한규·오기원 후보, 함평군수 이형섭 후보, 신안군수 고길호·최제순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단체장 27개 선거구 중 10곳 안팎을 격전지로 꼽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현직 단체장인 임택 후보와 전직인 김성환 후보 간 8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전사이며, 목포시장 선거는 재임 중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박홍률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순천시장 선거는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현직 노관규 후보가, 여수시장 선거는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진도·강진군수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희수 진도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신안군수 선거는 격전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민주당 박우량 후보가 전국 최초로 징검다리 5선 고지를 밟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기자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처



전남 의대 신설·대학 통합 파국 우려 확산

목포대 입장문 내 순천대 주장 반박

“정확약약 선행조건 의대 무산 가능성”

의대 소재지 시각차 뚜렷...합의 난망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대 소재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의대 설립과 대학 통합 모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는 27일 송하철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양 대학이 서로 합의한 바 없는 새로운 전제 조건을 제시한 순천대의 입장 표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 20일 이병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학 간 협의를 통한 의대 소재지 결정 방식에 한계를 인정하며 전남 동·서부권의 상이한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이원화된 의대 교육 체계와 권역별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정부 확약을 선행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전남 의대 신설을 스스로 지연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전제조건은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학 통합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목포대는 “정부의 확약이 선행되어야만 대학 통합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순천대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절차나 기존 의대 설립 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이라며 “이러한 전제조건은 전남 의대 신설 일정을 필연적으로 늦추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전남 의대 신설 무산 가능성까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목포대는 또 “양 대학 통합에 기반해 정부의 정상적인 절차로 전남 의대 신설을 올해 안에 확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5월”이라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한) 어떠한 일정과 절차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포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확약을 앞세워 논의를 멈추는 일이 아닌,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비인증 등 후속 절차를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운영 모델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순천대와 조속히 심도있는 상호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목포대·순천대는 2028년도 의대 신설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이다. 최대 쟁점인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의대 소재지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온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총장은 지난달 11일 보성에서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별도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

실무 협의 또한 지난달 3일 전남도 주관 하에 진행된 이후 중단된 데다, 양 대학이 입장문에서도 의대 신설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의 출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시원기자

Today

무등산권지질공원, 유네스코 3연속인증 2면

유해추정 944점, 유류품 566점 발견 7면

KIA, NC전도약발판KT전설옥나선다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